

뜨판이다. 아기자기한 맛은 없는 둥글넓적히 내려온 하관에 멋없이 내민 것이 그의 입이다. 두툼은 하나 거친 입술, 말 좀 하려면 그리 정하지 못한 웃니가 부질없이 뻗질 드러난다. -아내 (김유정)

- ②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뿜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양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 아홉 켄레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 ③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 ④ 인과관계

14. 김유정의 봄봄을 읽고 밑줄친 부분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A)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푼 안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건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그만 병병하고 만다.

(B)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속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감감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 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제-미 키두!”

(C)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꼭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텐가!” 하고 혼자 쫓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자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D)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마슬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구두 그걸 가만 뉘?” “그럼 어떡허니?” “임마,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 놓지 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쳤다. 놈이 번히 괘 괘한 하지만 그래 놓고 날더러 석유 값을 물라구 막 찌다우를 붙는다. 난 어안이 병병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지껄이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구 있을테냐?” “영득이는 일년을 살구두 장갈 들었는데 넌 사년이나 살구두 더 살아야해?” “네가 세 번째 사원줄이나 아냐?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두 분하다. 이자식,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흑막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 ① 짜장 : 과연, 정말로
- ② 속맥 : 콩인지 보리인지도 구분 못하는 아둔한 사람
- ③ 되알지게 : 매몰차게
- ④ 찌다우 : 허물을 남에게 전가하다

15. 다음 글 중 밑줄친 부분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만의 것으로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 ①
- ② 한국사람들은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보채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성미가 급하다.
- ③
- ④ 우리반이 1등을 했으니,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우수함에 틀림없다.

16.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정서의 시조는?

乾坤(건곤)이 閉塞(폐색)하야 白雪(백설)이 흰 빗친 제 , 사람은 ㄱ니와 놀새도 ㄴ쳐 잇다.
 瀟湘南畔(소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古處(옥누고처)야 더욱 ㄴ너 ㄹ습하리.
 陽春(양춘)을 부쳐 내여 ㄴ님 ㄹ겨신 대 ㅅ이고져.
 茅簷(모첨) 비친 해랄 玉樓(옥누)의 ㄹ리고져.
 紅裳(홍상)을 ㄴ의치고 翠袖(취슈)랄 ㅅ(반)만 거더, 日暮(일모) 脩竹(슈죽)의 ㄹ가림도 하도 할샤.
 ㄹ른 해 수이 디여 ㄴ밤을 고초 안자, 靑燈(청등) 거른 것태 鈿恐候(전공후) 노하 두고,
 ㅅ의 나 ㄴ님을 보려 ㄹ택 ㄹ고 비겨시니, 鳶隼(양금)도 ㄹ도 ㄹ샤 이 밤은 ㄹ제 ㄹ고.

- ① 靑石嶺(청석령) 지나거나 草河口(초하구) 어드메오.
 胡風(호풍)도 차도 ㄹ샤 ㄴ즌비는 무슨 일고.
 아므나 行色(행색) 그려 내여 ㄴ님 ㄹ겨신 디 ㄹ리고쟈.
- ② 秋風落葉(추풍낙엽)에 저도 날 ㄹ생각난가
 梨花雨(이화우) ㄹ뿌릴 제 ㄹ며 ㄹ고 離別(이별)한 ㄴ님
 千里(천리)에 ㄹ로운 ㅅ만 ㄹ락가락 하노매.
- ③ 梨花(이화)에 ㄹ백하고 銀漢(은한)이 ㄹ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ㄹ라마난
 多情(다정)도 병인 ㄹ하여 ㄹ 못 ㄹ러 하노라
 - 이조년의 시조 ‘다정가’
- ④

17. 다음 보기 글 중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비판이~ “줄어든다” ~~

- ① 인식이 줄어든다.
- ② 몸무게가 줄어든다.
- ③ 끓어서 찌개가 반으로 줄어든다.
- ④ 벌금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18. 지문 마지막 밑줄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제 아무리 대원군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타문명의 유입을 막을 길은 없다. 어떤 문명들은 서로 만났을 때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결코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아끼지 않은 문명은 외래 문명에 뒷발을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예측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다.

- ① 내가 당당해야 남을 수용할 수 있다.
- ② 개방은 어쩔수 없으니까, 조화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③ 그러므로 주체적 입장에서 외래문화의 선별적 수용이 필요하다.
- ④ 개방을 막았던 흥선대원군의 행동이 아쉽다.

19. 다음 글 내용에 나오는 서술자의 심리 태도와 유사한 것은?

우리 집안은 일찍부터 한 마지기의 논이나 밭땡기 한평도 지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아버지는 호미 자루 한번 잡아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s일정한 직업을 가져 본 적도 없었다. 일년을 따져 평균 아홉 달은 집을 떠나 어디론가 떠돌아다녔고, 집에 붙어 있는 나머지 달은 낚시로 소일했다. 이태 전 봄까지 만도 우리는 읍내거리 장터에 살았었다. 그때 역시 엄마는 근동 장터를 떠돌며 어물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읍내서 심리 채 못 떨어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관계못이나 그 위의 주남못으로 낚시를 다니며 늘 집에 떠날 궁리만 했었다. 그러나 새마을 도로가 확장되는 통에 우리가 세든 읍내 장터거리의 집이 헐리게 되자 아버지는 엄마를 졸라 동관계못 옆 민씨 별채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다.

“관리인 민씨가 타지서 오는 낚싯꾼들 뒷바라지나 해주모 찬값을 번다 안카나..” 하는 것이 이유였다. 엄마는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당신의 장사 다니는 길이 먼 줄을 뻔히 알지만, 어떻게 집밭이나 좀 붙어 눌러있을까 싶었던지 그 말에 쉽게 동의했다. 그러나 이사를 와서 보름을 채 못 넘겨 아버지는 또 슬그머니 집을 떠나고 말았었다. 자가용까지 몰고 들어닥치는 부산과 마산의 호사 낚싯꾼들이 떡밥은 물론 술병이며 안주 접시까지 심부름을 시키는데는 아버지도 더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나쁜 놈, 더러운 세상” 하고 전에는 입에 담지 않던 욕설을 술김에 종종 뱉더니 기어코 또 그 떠돌이병에 발동이 걸렸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동안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녔는지 모르지마 srm로부터 두 달 뒤, 여름이 끝날 무렵에서야 돌아왔다. 그리곤 그 행려 끝에 무슨 결심을 얻어 왔는지 돌베산자락을 덮은 민씨네 대나무 밭의 굵은 몇 그루를 쪼와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내게 더러 방패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번도 없던 짓거리였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그것을 햇빛에 잘 말려선, 장두칼로 잘 다듬고, 한지에다 바람구멍을 뚫어 거기에 다섯 개의 댓가치를 붙여 방패연을 만드는 솜씨는 아마도 아버지가 지닌 유일한 기술 같아 보였다. 천정 가운데 태극 무늬나 붉은 원을 그려 붙여 만든 연이 큰 것은 신문지만 했고 작은 것은 교과서 만한 것도 있었다. “겨울도 아닌데 그 연을 어데다 팔라캅니껴”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머 꼭 돈이 목적이 라서 맨드나. 쓸모가 없어도 맨들제. 풀이 만약 키 자랑할라카몬 나무만큼 클끼다 그러나 제 키만큼 적당히 자라고 말제.” 하고 아버지가 쓸데없이 비유까지 곁들여 말했다.

김원일 - 연

- 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악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게다. 이 낯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떨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수도 없게스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

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씨의일일(박태원)]

② 원구는 몇 걸음 다가서며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인기척을 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원구는 같은 말을 또한번 되풀이했다. 그래도 잠잠하다. 차차 거세가는 빗소리와 도랑물 소리뿐 황폐한 건물 자체가 그대로 죽음처럼 고요했다. 원구는 좀더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불러 보았다. 원구는 제 소리에 깜짝 놀랐다. 목에 엉켰던 가래가 풀리며 탁 터져 나오는 음성이 예상 외로 컸던 탓인지, 그것은 마치 무슨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비오는날(손창섭)]

③ 온 식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으면 큰오빠는 홀연히 귀가하여 무심한 얼굴로 뜨락의 잡초를 뽑고 있기도 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왔던 사업도 저만큼 던져놓은 채 그는 우두망찰 먼곳의 어딘가에 시선을 붙박아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그런 큰오빠를 설명하면서 곧잘 “진이 다 빠져버린 것 같어...” 라고 말하였다. 동생은 또 큰오빠의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핑 돌 만큼 애달프다고 말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전화 저편의 어머니도 진이빠진 목소리였고 동생 또한 목메인 음성이곤 하였다. 그것은 마치 믿고 있던 독의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보고를 듣는 것처럼 나에게도 허망한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한계령(양귀자)]

④ 지금으로부터 구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에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이의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FAJR고 들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약으로 약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사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께서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똑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고향(현진건)]

20. 상어 이빨과 관련한 글을 읽고 의문이 나는 점은?

상어 이빨은 사람에게 하여금 공포를 자아내게 한다.
상어의 이빨은 몇 줄로 되어있고, 많게는 25줄도 있고, 평생동안 2400개의 이빨이 나며.... 등....

- ①상어 이빨과 인간의 증오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다.
- ②상어 이빨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다.
- ③
- ④다른 동물들의 이빨은 어떤지 궁금하다.